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과 정서표출 동기 추론

심 현 주¹⁾

이 순 형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1) 연령, 대상, 표출상황, 정서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이 달라지는 지 살펴보고, 2) 연령, 표출상황에 따라 유아의 정서표출 동기 추론에 차이에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중류층 거주 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세 유아 39명과 5세 유아 46명을 대상으로, 이야기책 형식의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은 연령, 표출상황, 정서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만 3세 유아도 상황에 적합하게 정서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만 5세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이 3세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보다 정확했다. 노출 상황에서는 긍정적 정서일수록, 위장 상황에서는 부정적 정서일수록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이 정확했다. 둘째, 유아의 정서표출 동기 추론은 연령 및 표출상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만 5세 유아는 3세 유아보다 정서표출 동기 추론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유아는 자기이익추구적 동기 추론의 경우 노출 상황보다 위장 상황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하였고, 친사회적 동기 추론의 경우 위장 상황보다 노출 상황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주요어 : 정서표출 여부 결정, 정서표출 동기 추론, 정서표출규칙, 표출상황, 정서유형

1)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E-mail : punchshj@naver.com)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I. 서론

유아가 상황에 적합하게 정서를 위장 또는 노출하기 위해서는 정서표출 여부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는 사회적, 문화적 규준을 이해해야 한다. 한 문화 또는 사회가 공유하는 정서표출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규준을 정서표출규칙(Saarni, 1984)이라 하는데, Ekman과 Friesen(1975)은 정서표출규칙을 정서표출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조절하는 지에 관한 안내 지침 또는 원리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유아는 정서표출규칙에 의거하여 사회적 맥락 내에서 다양한 정서 상태를 표현하거나 표현해서는 안 되는 특정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Masters & Carlson, 1984). 따라서, 정서 사회화 과정의 핵심 요소(Zeman & Shipman, 1996)인 정서표출규칙의 이해는, 유아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과 원만한 상호작용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성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발달 과제다. 효과적인 정서 관리를 위한 시간적, 공간적, 방법적 지침을 포괄하는 정서표출규칙의 이해는 두 개의 중요한 인지적 요소로 구성된다(Jones, Abbey, & Cumberland, 1998). 첫 번째는 정서표출 여부 결정이다. 정서표출 여부 결정이란 정서 유발 상황에서 상황에 적합하게 정서를 위장 또는 노출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 따른 특정한 정서표출의 적합성에 대한 지식이며 특정 정서의 표출이 적합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Banerjee, 1997). 두 번째는 정서표출 동기 추론이다. 정서표출 동기 추론이란 유발된 정서를 왜 위장 또는 노출할 것인지에 대한 이유 부여(Zeman & Shipman, 1996)로, 정서표출 여부

결정의 내재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

정서표출 여부 결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최정윤, 1994; 한유진, 유안진, 1998; Gnepp & Hess, 1986; Saarni, 1979; Zeman & Garber, 1996; Zeman & Shipman, 1996)에 따르면, 학령기 이전의 유아는 정서표출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적, 문화적 규준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정서의 위장이 적합한 가설적 갈등 상황에 의한 정서표출규칙의 이해는 5학년 이후에는 발달적 변화를 많이 보이지 않는다(Gnepp & Hess, 1986; Underwood, Coie & Herbsman, 1992). 반면 관찰법에 의한 연구들(이지은, 1997; Cole, 1986; Josephs, 1994)에서는 유아도 실망 선물로 유발된 부정적 정서를 조절했다. 또한 과제의 추론 수준을 낮추어 유아를 대상으로 인형을 통한 면접을 실시한 연구(Banerjee, 1997)에 따르면, 3세의 유아도 위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상황과 노출이 적합한 상황을 구분했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과제 구성에 있어 난이도 조정 및 과제 전달 매체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이처럼 정서표출 여부 결정 발달 시기에 대한 결과들은 연구방법 및 과제의 난이도와 매체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아에게 적합한 매체와 과제를 토대로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표출 여부 결정에 관한 지식의 발달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서표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대상, 표출상황, 정서유형이 있다. 정서표출 여부 결정은 정서를 표출하는 대상이 성인 또는 또래인가에 따라 달라지며(Underwood et al., 1992; Zeman & Garber, 1996; Zeman & Shipman, 1996), 정서의 위장이 적합한 상황 또는 노출이 적합한 상황의 표출상황에 따라 차이가 난다(Banerjee, 1997). 또한 정서표출 여부

결정은 분노 및 슬픔 등의 특정 정서의 상황에서 따라 달라지며(Zeman & Garber, 1996; Zeman & Shipman, 1996), 경험하는 정서가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 차이가 난다(최정윤, 1994; 한유진, 2004; Banerjee, 1997; Mcdowell & Parke, 2000; Saarni, 1979).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맥락 및 상황에 따른 정서표출 여부 결정을 살펴보고, 정서유형에 따라서는 일치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그리고 대상, 표출상황, 정서유형과 같이 정서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 변수를 포괄하여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다. 따라서 정서의 위장 또는 노출이 적합한 상황에서 대상을 3세, 5세의 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화 대행자인 엄마, 또래로 나누고, 정서유형을 긍정적, 부정적 정서로 세분화하여 대상, 표출상황 및 정서유형에 따른 정서표출 여부 결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정서표출 동기 추론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은(이지선, 유안진, 1999; 최정윤, 1994; 한유진, 유안진, 1998; Banerjee, 1997; Gnepp & Hess, 1986; Saarni, 1979; Underwood et al., 1992), 정서표출규칙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심도 있게 탐색하게 위해 실시되었다. 정서표출 동기 추론은 정서표출 이후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유아의 인지적 평가를 반영하므로, 정서표출 동기 추론에 있어서도 발달적 경향이 나타난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표출 동기 추론 능력이 발달한다(이지선·유안진, 1999; 최정윤, 1994; 한유진·유안진, 1998; Banerjee, 1997; Gnepp & Hess, 1986; Saarni, 1984; Underwood et al., 1992). 그런데, 정서표출 동기 추론의 하위 범주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은 연령에 따른 일관적인 발

달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학령기 아동은 친사회적 동기 추론을 자기보호적 동기 추론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Gnepp & Hess, 1986)가 있는 반면, 자기보호적 동기 추론을 친사회적 동기 추론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한유진, 유안진, 1998; Saarni, 1984)가 있다. 또한, 연령 증가에 따라 학령 중기 아동은 초기 학령기 아동에 비해 사회관계유지적 동기 추론을 자기보호적 동기 추론과 사회규범유지적 동기 추론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최정윤, 1994)도 존재한다. 한편, 만 3, 4, 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표출 동기 추론을 살펴본 연구(Banerjee, 1997)에서는 유아들이 ‘부정적결과 회피적’ 동기 추론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와 같이, 연령에 따라 아동의 정서표출 동기 추론 능력은 증가하는데, 정서표출 동기 추론의 하위범주 사용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존재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거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유아에게서도 정서표출 동기 추론 사용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나는 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서표출 동기 추론은 정서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한 연구(Zeman & Garber, 1996)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분노, 슬픔, 고통의 정서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표출 동기 추론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탐색했다. 분노 상황일 경우 정서를 노출을 함으로써 도움 혹은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는 도구적 동기 추론이, 슬픔 상황일 경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기대하는 관계적 동기 추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친사회적 동기 추론을 다른 동기 추론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이지선, 유안진, 1999)도 있다. 이 연구결과들은 아동이 특정 상황 맥락 내에서의

상황적 단서에 더욱 민감함(Zeman & Shipman, 1996)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서표출 동기 추론 또한 연령 발달에 따른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통해 탐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정서의 위장 또는 노출의 상황적 맥락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출 동기 추론의 차이는 유아의 사회적 상황 및 정서표출의 결과에 대한 세련되고 복잡한 사고의 발달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유아를 대상으로 표출 상황에 따른 정서표출 동기 추론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아의 수준에 적합한 과제 수준과 매체를 통해, 유아의 연령, 대상, 표출상황 및 정서유형에 따라 정서표출 여부 결정이 달라지는 지, 유아의 연령과 표출 상황에 따라 정서표출 동기 추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은 아래의 연구 문제로 구체화되었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은 연령, 대상, 표출상황, 및 정서유형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은 연령(3세/5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2.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은 대상(엄마/또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3.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은 표출상황(노출/위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4.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은 정서유형(긍정/부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5.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은 우연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정서표출 동기 추론은 연령 및 표출상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가?

2-1. 유아의 정서표출 동기 추론은 연령(3세/5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2. 유아의 정서표출 동기 추론은 표출상황(노출/위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중류층 거주 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유아 39명과 만 5세 유아 46명을 연구대상으로 임의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는 남아가 43명, 여아가 42명이었고, 3세 유아의 평균 월령은 만 3세 유아가 3세 7개월(38개월~47개월), 만 5세 유아가 5세 6개월(60개월~70개월)이었다. 연구대상의 연령을 만 3세와 5세를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정서표출규칙의 이해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풍부한 반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서표출 여부 결정은 실제-외현 정서 구분 능력과 연관되고, 정서 영역에서의 실제-외현 정서 구분 능력은 물리적 영역에서의 실제-외현 구분 능력과 연관된다(Banerjee, 1997). 물리적 영역에서의 실제-외향 구분 능력은 만 4세가 결정적 시기라는 선행연구(Wellman, Cross & Watson, 2001)를 보면,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 또한 이 시기가 중요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결정적 시기의 전, 후인 만 3세와 만 5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의 정서표출 결정 여부 및 동기 추론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 및 정서표출 동기 추론을 측정하기 Harris, Donnelly, Guz & Pitt-Watson(1986), Joshi와 MacLean(1994), Banerjee(1997) 및 김혜리(2000)에서 사용된 과제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각 연구의 과제 구성, 과제 특징 및 매체는 표 1과 같다.

선행연구들은 대상, 표출상황, 및 정서유형에 따라 과제를 평행하게 설계하지 않았고, 유아에게 친숙하지 않는 과제 상황(예; 배가 아픈데 놀러 나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려는 상황)도 포함되어 있다. 과제 상황에 따라 이야

기의 내용이 유사한 문장 형태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 과제 상황의 내용이 길어 3세 유아에게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그림카드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각 상황의 장면에 맞게 구체적인 그림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인형 면접을 사용한 연구는 과제 제시 방법과 대답이 언어적인 방법에 의존한다. 따라서 유아의 기억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의 과제와 절차를 수정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제 구성과 매체의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도구를 보완하였다. 과제 구성은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하였다. 첫째, 각 과제 상황을 유사한 맥락과 문형의 4가지

표 1.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정서표출 여부 결정 및 정서표출 동기 추론 과제 구성, 과제 특징 및 매체

선 행 연 구			
Harris와 동료들 (1986)	과제구성	위장 상황 8개 (긍정적 정서 4개, 부정적 정서 4개)	
	과제특징	정서유발 상황의 주인공이 실제 감정에 대한 단서 및 과제 주인공의 정서 위장에 대한 표출 결정을 과제 상황에서 제시함.	
	매체	그림카드	
Joshi와 Maclean (1994)	과제구성	위장 상황 12개 [성인과 상호작용하는 상황 6개(긍정적 정서 4개, 부정적 정서 2개),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상황 6개(긍정적 정서 4개, 부정적 정서 2개)]	
	과제특징	성인과 상호작용하는 내용 추가 및 과제주인공의 실제 감정에 대한 단서를 Harris와 동료들(1986)의 연구에서 보다 명료하게 제시함.	
	매체	그림카드	
Banerjee (1997)	과제구성	위장 상황 3개(긍정적 정서 1개, 부정적 정서 2개), 노출 상황 2개(긍정적 정서 2개)	
	과제특징	과제 주인공의 실제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과제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다고 알려줌.	
	매체	인형	
김혜리 (2000)	과제구성	위장상황 4개(긍정적 정서 2개, 부정적 정서 2개), 노출상황 4개(긍정적 정서 2개, 부정적 정서 2개)	
	과제특징	과제 내용의 문형과 맥락이 유사함.	
	매체	인형	

장면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대상에 따른 수행 차이를 살펴봄에 있어 과제 간 불일치에 따른 수행 차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동일 과제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을 엄마와 또래로 바꾸었다. 셋째, 과제 주인공의 성명 변동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인공과 과제 상대방의 이름을 각각 한 사람으로 통일하였다. 넷째, 우리 문화 내에서 유아에게 친숙한 정서유발 상황과 놀이 상황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Joshi와 Maclean(1994)의 연구에는 ‘삼촌이 트림’을 해서 과제 주인공이 웃겨하는 이야기가 포함되었는데, 서양에서는 ‘트림’을 숨겨야 하는 사건으로 인식하지만 우리나라에

서는 ‘방귀’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방귀뀌는 상황’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생일 선물을 받거나’, ‘블럭놀이’, ‘공놀이’ 등의 성 중립적이며,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친숙한 상황을 선택하였다. 다섯째, 기존의 과제에서는 주인공의 실제 정서가 기쁨, 화남, 슬픔, 고통 등으로 다양한데, 이 중에서 3세 유아에게도 가장 친숙한 실제 정서(기쁨, 화남)만을 선택하고, 실제 정서를 명확하게 유아에게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 표출상황, 정서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 및 정서표출 동기 추론을 측정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16과제 상황을 구성하였다

표 2. 정서표출 여부 결정 및 정서표출 동기 추론 측정 과제 구성

대상	표출 상황	정서 유형	과제 이야기	이야기 번호
엄마	노출	긍정	원하는 간식 받은 상황	1
			흡족한 생일선물 받은 상황	2
		부정	원하는 간식 못 받은 상황	3
			병원놀이 상황	4
	위장	긍정	상대방이 방귀뀐 상황	5
			블록쌓기 게임에서 이긴 상황	6
		부정	실망적인 생일선물 받은 상황	7
			공잡기 놀이에서 진 상황	8
또래	노출	긍정	원하는 간식 받은 상황	9
			흡족한 생일선물 받은 상황	10
		부정	원하는 간식 못 받은 상황	11
			병원놀이 상황	12
	위장	긍정	상대방이 방귀뀐 상황	13
			블록쌓기 게임에서 이긴 상황	14
		부정	실망적인 생일선물 받은 상황	15
			공잡기 놀이에서 진 상황	16

매체의 경우, 각 과제 상황을 3세 유아도 쉽게 이해하고 유아의 언어적 부담과 기억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도구를 보완하였다.

첫째, 각 과제 상황의 4 가지 장면을 그림 카드로 작성하여 1권의 짧은 이야기책 형식으로 만들었다. 각 과제 상황은 4 가지 장면으로 구성된다. 1) 정서 유발 상황(예; 엄마가 영희에게 생일 선물을 줬는데, 알고 보니 찌그러진 공이었어), 2) 주어진 상황에서의 주인공의 실제 정서 인식(예; 진짜로는 예쁜 인형을 받고 싶었기 땀에, 영희는 기분이 나빠졌대), 3) 과제 주인공의 실제 정서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에 대한 가정(예; 하지만 자기 기분이 안 좋은 걸 엄마가 알면), 4)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주인공의 생각(예; 엄마가 속상해할 꺼라 생각해)으로 구성된다. 둘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3장의 표정카드(기쁜 표정, 화난 표정, 중립적 표정)를 준비하여 유아가 대답 대신, 손으로 가리킬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수정된 정서표출 여부 결정 및 정서표출 동기 추론 측정도구는 예비 조사를 통해 측정 도구의 적합성을 알아보았으며, 아동학 전공자 3인에 의해 내용 타당도를 검정 받았다. 16개의 과제 상황과 표정카드는 남아용, 여아용으로 나뉘고, 각각의 과제 상황은 4장의 그림으로 구성되므로 정서표출 여부 결정

및 정서표출 동기 추론 측정에 사용되는 그림의 수는 총 134장 $[16(\text{과제}) \times 4(\text{장면}) \times 2(\text{성별}) + 3(\text{표정카드}) \times 2(\text{성별})]$ 이다. 그림 과제의 주인공과 유아는 동성이 되도록 하였으며, 유아에게 제시되는 그림은 14×10cm 크기의 흑백 그림을 사용하였다.

정서표출 여부 결정은 과제를 제시한 후 “(주인공은) 엄마/친구에게 자기 기분을 보여 주려고 할까? 안할까?”의 폐쇄형 질문을 통해 유아가 정서의 위장이 적합한 상황 또는 노출에 적합한 상황에 적절하게 정서표출 여부를 결정하는 지 측정하였다. 각 과제 상황에서 유아가 노출 혹은 위장 상황에 적합하게 대답한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노출이 적합한 상황인 경우 “보여줄꺼예요”, 위장이 적합한 상황인 경우 “안 보여줄꺼예요” 혹은 “숨길꺼예요” 등으로 대답하면 1점을 주었다. 표출 상황에 적합하지 않게 대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정서표출 여부 결정의 총 점수는 0점에서 16점까지이다.

또한 정서표출 동기 추론은 “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기분을 (안) 보여주려고 할까?”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선행 연구(Jones et al., 1998)에 따라 정서표출 동기 추론을 친사회적 동기 추론, 자기보호적 동기 추론 및 사회규준유지적 동기 추론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유아들의 응답을 분

표 3. 정서표출 동기 추론의 하위범주 및 사용 사례

범주	정 의	사용 사례
친사회적	타인의 감정과 정서적 복지를 배려하는 것	‘친구가 빠지거나 화를 낼까봐’ 또는 ‘친구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이익추구적	물질적 보상을 기대하거나,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려는 것	‘또 다른 선물을 받고 싶으니까’ 혹은 ‘친구가 안 놀아 줄까봐’
사회규준유지적	사회적 규칙이나 관행 등을 언급하는 것	‘선물을 받으면 고마워해야 하니까요’

석한 결과, 자기보호적 동기 추론에서 처벌 등의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고 자존감을 지키려는 자기보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표출에 따르는 물질적 보상을 기대하는 동기를 포함하였기에 자기보호적 동기 추론을 자기이익추구적 동기 추론으로 범주를 수정하였다. 각 하위 범주에 따른 정의 및 구체적 사례는 표 3과 같다.

각 과제 상황에서 유아가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동기 추론을 사용한 경우 1점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다. 표출상황에 따른 정서표출 동기 추론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노출 및 위장 상황으로 나누었으므로 각 하위 범주의 사용 빈도에 따라 노출 상황에서 0-8점, 위장 상황에서 0-8점의 분포를 가진다.

아동학 전공자 2인에 의해 평정된 정서표출 동기 추론의 일치도는 .86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두 평정자 간 평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논하여 합의에 의해 범주화하였다.

연구절차

예비조사

정서표출 여부 결정 및 정서표출 동기 추론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가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지, 연구에 사용된 그림 도구가 유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한지, 그리고 소요시간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3세, 5세 유아 각 4명씩 모두 8명을 대상으로 2005년 4월 7일에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1곳에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 결과, 3세 유아의 경우 과제 이야기 중 ‘그런데 자기가 빠진 걸 엄마(친구)가 알면, 영희보구 "이번엔 네가 의사선생님 해" 할꺼라고 생각해’와 같이 가역

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그림에서는 이 장면이 한 컷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3세 유아들은 이 상황을 한 컷으로 제시했을 때 과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엄마(친구)의 주인공의 감정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주인공의 판단’을 분리하여 두 컷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서표출 여부 결정 및 정서표출 동기 추론에 관련된 16가지 과제 모두를 듣고 대답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25분-30분 정도로 나타나서, 인터뷰 후반으로 갈수록 유아의 집중력이 떨어졌다. 따라서 정서표출 여부 결정 및 정서표출 동기 추론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본조사에서는 하루에 8개의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수정된 연구도구를 바탕으로 3세, 5세 유아 각 4명씩 총 8명을 대상으로 2005년 4월 21일에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1곳에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에서, 엄마(친구)의 ‘주인공의 감정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주인공의 판단’이 두 컷으로 유아에게 제시되자, 3세 유아들도 과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8개의 과제에 대한 면접 시간은 10분-15분 정도가 소요되어, 유아가 집중하여 개별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다.

본조사

본조사는 2005년 4월 27일부터 8월 30일에 걸쳐 연구자 및 검사 실시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아동학 전공자들이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2곳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오전과 오후 자유놀이 시간에 연구대상

유아를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의 동작실로 불러서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자들이 일대일 면접을 통해 8가지 이야기 상황에서 정서표출 여부 결정 및 정서표출 동기 추론을 측정하였다. 개별 면접자는 각 어린이집의 1차 본조사에서 엄마 혹은 친구의 그림도구 세트와 과제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연구대상 유아별로 조사대상리스트에 표시하였다. 그리고 2차 본조사에서는 1차 본조사 때와 다른 대상의 그림도구 세트를 사용하여, 개별 유아 당 엄마와 친구의 2장의 응답지가 완성되도록 하였다. 또한 이야기 상황에 따른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무작위 순서로 유아에게 이야기가 제시되었다. 조사 과정에서는 성별과 대상에 따라 그림번호와 이야기 내용에 번호를 부여하여 면접자가 이야기 내용을 보고 그림순서에 맞춰 질문을 그대로 읽도록 하였고, 각각의 유아에 대해 면접자의 목소리톤이나 얼굴표정을 동일하게 하였다.

유아가 면접 장소에 들어오면 유아에게 3장의 표정카드를 보여주며 정서와 표정카드를 일치시키며 라포를 형성하였다. 한 개의 과제당 4장으로 구성된 연구도구를 펼쳐가며 유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듯이 과제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각 상황에 대해 두 번씩 들려주어 유아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각 과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유아에게 질문을 하고, 유아의 응답을 응답지에 기록하였다.

정서표출 여부 결정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엄마) / (친구)에게 자기 기분을 보여주려고 할까? 안할까?)을 실시하기 전에,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정서를 위장 또는 노출할 때 기대되는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었다. (예; 영희가 아이스크림을 받아 기쁜 걸 엄마

가 알면 또 다른 아이스크림을 사주실 거라 생각하는 데, 엄마에게 자기 기분을 보여주려고 할까? 안할까?) 그리고 정서표출 동기 추론을 알아보는 질문(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기분을 (안) 보여주려고 할까?)을 실시하여, 유아가 왜 정서를 위장 또는 노출한다고 생각하는 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유아가 응답을 할 때, 언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표정 카드로 대답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언어적 진술과 표정카드를 일치하지 않게 대답한 경우(예; 언어적 진술은 ‘화난 표정’인 반면 표정카드는 ‘웃는 표정’을 선택)는 질문을 반복하여 언어적 진술과 표정카드 선택이 일치하도록 했다. 연구 대상 유아의 경우 간혹 불일치적인 진술과 선택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조사는 실시하였지만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2.0 프로그램에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단일표본 t 검정, 반복 측정 변량 분석(repeated measure ANOVA), t 검정, 그리고 쌍체 t 검정(paired t-tests)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정서표출 여부 결정

유아의 연령, 대상, 표출상황 및 정서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에 차이가 있는

표 4. 연령, 대상, 표출상황 및 정서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

대상	표출상황	정서유형	연령		평균 (N=85)
			3세 (n=39)	5세 (n=46)	
			M(SD)	M(SD)	
엄마	노출	긍정	1.72(.60)	1.83(.49)	1.78(.54)
		부정	1.00(.86)	1.41(.83)	1.22(.86)
		평균	1.36(.62)	1.62(.52)	1.50(.58)
	위장	긍정	.82(.91)	1.26(.80)	1.06(.88)
		부정	1.15(.87)	1.28(.78)	1.22(.82)
		평균	.99(.82)	1.27(.72)	1.14(.78)
또래	노출	긍정	1.62(.67)	1.85(.47)	1.74(.58)
		부정	1.08(.87)	1.22(.89)	1.15(.88)
		평균	1.35(.66)	1.53(.53)	1.45(.60)
	위장	긍정	.92(.84)	1.09(.91)	1.01(.88)
		부정	1.13(.92)	1.15(.92)	1.14(.91)
		평균	1.02(.78)	1.12(.84)	1.08(.81)

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대상, 표출상황 및 정서유형을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유아의 연령, 표출상황 및 정서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정서표출 점수가 3세 유아와 5세 유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0.97$, $df=1$, 83 , $p<.001$). 만 5세 유아는 만 3세 유아보다 정서의 위장 혹은 표현을 요구하는 상황의 적합성을 더 잘 이해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의 정서표출 규칙에 대한 이해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최정윤, 1994; 한유진, 유안진, 1998; Gnepp & Hess, 1986; Saarni, 1979; Zeman & Garber, 1996; Zeman & Shipman, 1996)과 일

치한다.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은 대상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5세 유아는 엄마일 경우 판단의 정확성이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청중 조건에 따른 차이를 보고한 연구결과들(Zeman & Garber, 1996; Zeman & Shipman, 1996)와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유아의 경우 학령기 아동만큼 정서표출의 대인관계적 결과를 잘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대상에 따른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출상황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정서노출 상황에서의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 점수는 정서 위장 상황에서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 점수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9.13$, $df=1$, 83 , $p<.01$). 정서의 노출이 적합한 상황

표 5. 연령, 대상, 표출상황 및 정서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 변량분석

범주구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정서표출 여부 결정	피험자간	연령	7.19	1	7.19	10.97 **
		오차	54.40	83	.65	
		대상	.48	1	.48	1.57
		대상×연령	.74	1	.74	2.41
		오차	25.42	83	.30	
		표출상황	22.28	1	22.28	9.13 **
		표출상황×연령	.05	1	.05	.02
		오차	202.58	83	2.44	
		정서유형	7.97	1	7.39	20.83 ***
		정서유형×연령	.15	1	.15	.42
		오차	29.47	83	.35	
		대상×표출상황	.01	1	.00	.00
		대상×표출상황×연령	.14	1	.14	.32
		오차	36.60	83	.44	
		대상×정서유형	.04	1	.04	.18
		대상×정서유형×연령	.13	1	.13	.63
		오차	17.56	83	.21	
		표출상황×정서유형	22.57	1	22.57	45.48 ***
		표출상황×정서유형×연령	1.16	1	1.16	2.34
		오차	41.19	83	.49	
		대상×표출상황×정서유형	.00	1	.00	.02
		대상×표출상황×정서유형×연령	.85	1	.85	3.55
		오차	19.89	83	.24	

p<.01, *p<.001

에서 유아의 수행이 높았는데, 이는 유아의 경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경향이 있으며(Harris & Gross, 1988), 위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김혜리, 2000; Harris et al., 1986)는 선행연구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정서유형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일 경우의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 점수는 부정적 정서일 경우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 점수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0.83$, $df=1, 83$, $p<.001$). 과제 주인공이 경험하는 정

서가 긍정적일 때 유아는 정서 표현의 적합성을 더 잘 판단했는데, 이는 긍정적 정서일 때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이 더 정확했다는 선행연구(Banerjee,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표출상황과 정서유형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45.48$, $df=1, 83$, $p<.001$)가 나타났다. 이처럼 표출상황과 정서유형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므로, 쌍체 t 검증을 통해 단순 주효과를 분석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표 6, 그림 1). 노출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따른 차이($t=7.22$,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위장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따른 차이($t=-2.37$, $p<.05$)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들이 긍정적인 감정은 드러내도 무방하나(Banerjee, 1997), 부정적인 감정은 숨겨야 한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이 우연수준이상의 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연령별 평균 점수와 우연수준 점수와 비교하는 단일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정서표출 여부 결정의 총점은 16점이므로 유아가 우연히 과제에 정답할 수 있는 우연 수준 점수는 8점이다. 각 연령별 평균 점수와 우연수준 점수를 단일표본 t -검정을 통해 비교한 결과 3세($t=4.24$, $p<.001$)와 5세 유아의 수행은 우연수준 보다 높게 나오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6. 표출상황 및 정서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 단순 주효과 분석

표출상황	정서유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노출	긍정	85	3.52	.92	7.22 ***
	부정	85	2.38	1.54	
위장	긍정	85	2.07	1.54	-2.37 *
	부정	85	2.36	1.54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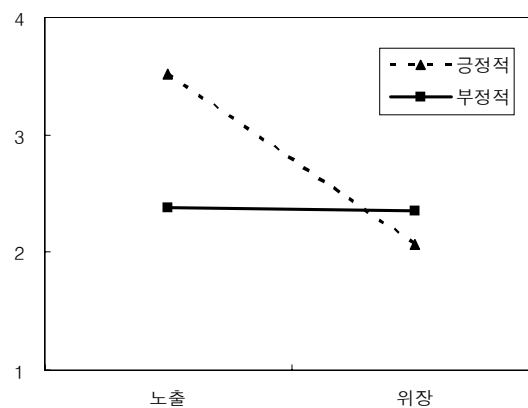


그림 1. 표출상황과 정서유형에 따른 유아의 실제-외현 정서 구분의 상호작용 효과

표 7. 연령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 수행 우연수준 검증

연령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3세	39	9.44	2.11	4.24 ***
5세	46	11.09	2.42	8.62 ***

*** $p < .001$

($t=8.62$, $p < .001$). 이는 3세 유아도 우연수준 이상의 수행을 보인 연구 결과(Banerjee, 1997)와 일치하며, 3세 유아도 정서의 위장 또는 노출의 적합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정서표출 동기 추론

유아의 연령과 표출상황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출 동기 추론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 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유아의 연령 및 표출상황에 따라 정서표출 동기 추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

기 위하여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표출상황을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이 자기이익추구적 동기 추론 점수와 친사회적 동기 추론 점수에서 연령 및 표출상황에 따라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규준 유지적 동기 추론 점수에서는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자기이익추구적 동기 추론($F=14.80$, $df=1$, 83, $p < .001$)와, 친사회적 동기 추론($F=15.93$, $df=1$, 83, $p < .001$) 및 사회규준유지적 동기 추론($F=4.93$, $df=1$, 83, $p < .05$)에서 연령 차이가 유의하게

표 8. 연령 및 표출상황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출 동기 추론 점수

표출 상황	하위 범주	연령		평균 (N=85)
		3세(n=39)	5세(n=46)	
		M(SD)	M(SD)	
노출	자기이익추구적	.43(1.35)	2.00(2.22)	1.28(1.97)
	친사회적	.05(.22)	.56(1.29)	.32(.99)
	사회규준유지적	.07(.35)	.41(.88)	.25(.71)
위장	자기이익추구적	.30(.86)	.91(1.47)	.63(1.26)
	친사회적	.25(.91)	1.89(2.26)	1.14(1.94)
	사회규준유지적	.10(.44)	.35(.94)	.23(0.76)
전체	자기이익추구적	.74(2.08)	2.90(2.95)	1.92(2.78)
	친사회적	.30(1.05)	2.46(3.21)	1.47(2.68)
	사회규준유지적	.17(.72)	.76(1.5)	.49(1.23)

표 9. 정서표출 동기 추론 하위범주별 연령 및 표출상황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출 동기 추론 변량분석

범주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자기 이익 추구적	연령	49.67	1	49.67	14.80 ***
	오차	274.54	83	3.35	
	표출상황	15.58	1	15.58	10.67 **
	표출상황×연령	9.7	1	9.7	6.65 *
	오차	35.91	83	.43	
친사회적	연령	48.73	1	48.73	15.93 ***
	오차	253.86	83	3.06	
	표출상황	24.73	1	24.73	24.91 ***
	표출상황×연령	13.26	1	13.26	12.91 **
	오차	35.91	83	.43	
사회 기준 유지적	연령	3.57	1	3.57	4.93 *
	오차	60.06	83	.72	
	표출상황	.02	1	.02	.05
	표출상황×연령	.88	1	.88	26
	오차	27.89	83	.34	

* $p < .05$, ** $p < .01$, *** $p < .001$

나타났다. 즉 자기이익추구적 동기 추론, 친사회적 동기 추론, 사회기준유지적 동기 추론 모두에서 5세 유아의 점수가 3세 유아의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증가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출 동기 추론 추론 능력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지선, 유안진, 1999; 최정윤, 1994; 한유진, 유안진, 1998; Banerjee, 1997; Gnepp & Hess, 1986; Saarni, 1984; Underwood et al., 1992)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5세 유아의 정서표출 동기 추론 능력이 3세 유아보다 뛰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표출상황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자기이익추구적 동기 추론($F=10.67$, $df=1$,

83, $p < .01$)와 친사회적 동기 추론($F=15.93$, $df=1$, 83, $p < .001$)에서 위장 상황과 노출 상황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노출 상황에서는 자기이익추구적 동기 추론 점수가 더 높았고, 위장 상황에서는 친사회적 동기 추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출 상황일 경우 유아가 자기이익추구적 동기를 더 많이 사용한 반면, 위장 상황일 경우 친사회적 동기를 더 많이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며, 유아의 정서표출 동기가 정서의 표출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이익추구적 동기에서 연령과 표출상황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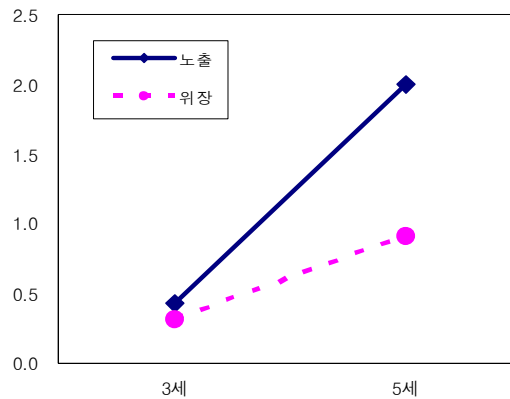


그림 2. 자기이익추구적 동기 추론의 연령과 표출상황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표 10. 자기이익추구적 동기 추론의 연령과 표출상황에 따른 단순 주효과 분석

연령	표출상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3세	노출	39	.44	1.35	.70
	위장	39	.30	.86	
5세	노출	46	2.00	2.13	3.34**
	위장	46	.91	1.47	

**p<.01

친사회적 동기에서 연령과 표출상황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의 연령 및 표출상황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므로, 쌍체 t 검증을 통해 단순 주효과를 분석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먼저 자기이익추구적 동기에서 유아의 연령 및 표출상황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6.65$, $df=1$, 83 , $p<.05$)가 나타났다(그림 2). 표 10에서 3세 유아의 경우 노출 상황과 위장 상황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5세 유아의 경우 노출 상황과 위장 상황 간의 차이($t=3.34$, $df=45$,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3세 유아의 경우 물질적 보상에 대한

기대나 부정적 결과를 고려하여 정서표출 여부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5세 유아의 경우 자신에게 주어지는 즉각적인 보상 등을 더 많이 기대하며 자신의 정서를 노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사회적 동기에서 유아의 연령 및 표출상황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12.91$, $df=1$, 83 , $p<.01$)가 나타났다(그림 3). 표 11에서 3세 유아의 경우 노출 상황과 위장 상황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5세 유아의 경우 노출 상황과 위장 상황 간의 차이($t=-4.99$, $df=45$,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3세 유아의 경우 타인의 감정과 정서적 복지를 고려하여 정서표출 여부를 결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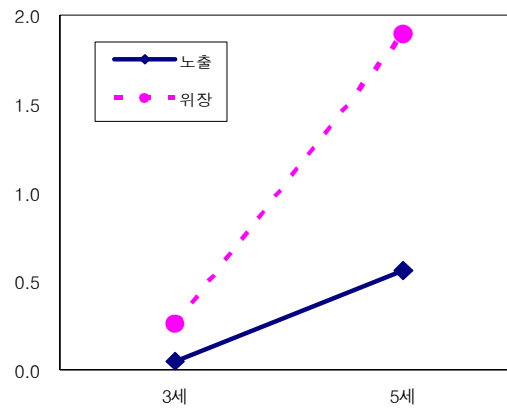


그림 3. 친사회적 동기 추론의 연령과 표출상황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표 11. 친사회적 동기 추론의 연령과 표출상황에 따른 단순 주효과 분석

연령	표출상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3세	노출	39	.05	.22	-1.60
	위장	39	.26	.91	
5세	노출	46	.56	1.29	-4.99 ***
	위장	46	1.89	2.26	

*** $p < .001$

는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5세 유아의 경우 타인의 감정과 정서적 복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정서를 위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연령, 대상, 표출상황 및 정서유형에 따라 정서표출 여부 결정이 달라지는 지, 유아의 연령과 표현 상황에 따라 정서표출 동기 추론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유아 39명과 5세 유아 46명을 연구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 및 정서표출 동기 추론을 측정하기 위해 이야기책 형식의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은 채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유아의 정서표출 동기추론은 분석 범주에 따라 부호화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만 3세의 유아도 상황에 적합하게 정

서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정서표출에 따른 대인관계적 결과까지 고려하는 정교하고 세련된 정서표출규칙의 습득은 아동 중기에 걸쳐 발달하지만(Fuchs & Thelen, 1988), 3세 유아도 특정 정서의 상황에 따른 표출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적 규준을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서표출규칙 관련 사회화가 유아기 때부터 작용하여 유아에게 정서표출규칙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 5세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은 만 3세 유아보다 더 정확했는데, 이는 만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가 정서의 위장 또는 노출을 요구하는 상황의 적합성을 더 잘 이해함을 의미한다. 이는 연령 증가에 따라 사회화 경험의 맥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며 대인간 행동규칙의 학습에의 기회가 증가하므로(Saarni, 1989),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상호작용하는 대상에 따라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인지능력의 발달과 사회적 경험 증가에 따라 학령기 아동은 정서표출의 대인관계적 결과를 잘 고려하여 정서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유아는 학령기 아동만큼 복잡하고 세련된 사고를 할 수 없으므로 정서표출 여부 결정이 대상이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 표출상황과 정서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표출 여부 결정은 달라진다. 정서를 노출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에서 유아들의 수행이 높았고, 정서가 긍정적일 때 수행이 높았다. 또한 노출 상황에서는 긍정적 정서일수록(Banerjee, 1997), 위장 상황에서는 부정적 정서일수록 유아들의 정서표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확했다(Gnepp & Hess, 1986; Saarni, 1979). 이는 유아들이 긍정적인 감정은 드러내도 무

방하나, 부정적인 감정은 숨겨야 한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부모가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출에 덜 반응적이었다는 연구(Malatesta & Haviland, 1982)와 부모가 부적절한 정서표출을 규제할수록 사회적으로 적합한 정서 반응을 결정하는 표출규칙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한유진, 유안진, 1998; Banerjee, 1994)의 맥락에서 보면, 이 연구 결과도 유아들이 특히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의 규제에 대한 사회화에 더 민감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유아들은 정서표출 여부를 결정할 때 부정적 정서의 노출이 적합한 상황에서도 부정적 감정은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5세에 비해 3세 유아는 부정적인 정서의 노출로 인해 원하는 물건이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도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것이라 대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정적 정서의 조절이 성공적인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하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아동은 행복이나 자부심등의 긍정적 정서의 표현 또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한유진, 2004). 또한 긍정적 정서의 조절이 좀 더 유능한 사회적 기술(McDowell & Parke, 2000)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정서 유형의 사회화를 연령에 따른 발달선 상에서 살펴보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만 5세 유아의 정서표출 동기 추론은 만 3세 정교하다. 3세 유아의 대부분은 정서표출 여부 결정에 대한 근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한 반면, 5세 유아는 비교적 더 많은 수의 적절한 응답을 제시했다. 상당수의 3세 유아는 “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기분을 (안)보여주려고 할까?”의 질문에 “그냥요”, “몰라요”라고 대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어느 정도 언어 능력의 부족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언어 능력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3세 유아의 정서표출 동기 추론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응답은 정서유발 상황에 대한 언급(예;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줬으니까요, 친구만 계속 의사하니까요), 경험된 정서의 재 언급(예; 기쁘니까요, 화가 나니까요), 과제 상황에 대한 관습적인 평가(예; 아이스크림 먹으면 이가 썩어요)과 같이 언어 능력의 제한과 상관 없는 대답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유아에게 제시된 과제 시나리오는 과거 사건(정서유발 상황 및 주어진 상황에서의 주인공의 실제 정서 인식)과 미래 사건(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주인공의 생각)을 포함한다. 3세 유아는 미래 사건보다 과거사건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며 정서표출 동기 추론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응답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5세 유아는 미래 사건인 정서표출 이후에 기대되는 결과에 더 주목하며 적절한 응답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린 유아는 과거 사건과 관련하여 정서 변화 원인을 이해하며(이순이, 2001), 인지적 단서를 활용함에 있어 사고 과정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과거 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정현심, 2004). 따라서, 이는 정서표출 동기 추론 능력 발달 과정에 있어 인지적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므로 후속 연구를 통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표출상황에 따라 유아의 정서표출 동기 추론이 달라진다. 5세 유아는 표출상황의 적합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통해, 정서표출 동기 추론을 차별적으로 사용한다. 정서의 노출이 적합한 상황에서는 물질적 보상이나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려는 이유로 정서표출 여부를 결정하지만, 정서의 위장이 적합한 상황에서는 타인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서표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정서표출 동

기 추론 발달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친사회적 동기 추론이 자기보호적 동기 추론보다 선행하거나 자기보호적 동기 추론이 친사회적 동기 추론보다 선행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 연구결과는 유아가 상황적 맥락에 따라 정서표출을 결정하는 내재적인 이유를 달리 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정서표출 동기 추론의 후속 연구에서도 표출상황 등의 구체적인 변수가 포함될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정서표출 여부 결정 및 정서표출 동기 추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언어적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야기 책 형식의 그림카드를 통해 과제 상황을 제시하여 유아의 충분한 상황 이해를 돕고자 했으나 유아의 일반적 언어 능력의 차이에 따른 효과가 배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언어 능력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여 실험 집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표출 동기 추론을 측정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채택했는데, 만 3세의 유아에게는 언어적 진술이 다소 어려운 과제였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린 유아에게 좀 더 적합한 측정방법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한 예로, 완전 개방형 질문 대신에 선택형 질문 방식을 채택하여, 이를 유아에게 그림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예비 조사를 통해 유아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정서표출 동기 추론의 하위 범주를 추출하여, 과제 질문 후 각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그림을 유아에게 보여준다. 조사자는 그림과 함께 정서표출 동기추론 사용에 대한 내용을 유아에게 읽어 주고, 유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해당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한다. 또한, 제시된 그림 중에 유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답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

므로, 개방형 질문 방식을 보완적으로 채택하여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제한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한다.

참고문헌

- 김혜리 (2000). 어린 아동의 실제정서와 표면 정서의 이해: 아동의 마음이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1-19.
- 이순이 (2001). 유아의 인지적 단서와 관련된 정서변화 원인의 이해능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선 · 유안진 (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8.
- 이지은 (1997).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사용 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현심 (2004). 유아의 의도 조망과 인지적 단서 활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윤 (1994). 정서와 정서표현에 대한 아동의 이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유진 (2004).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 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3), 65-77.
- 한유진 · 유안진 (1998). 부모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대한가정학회지, 36(11), 61-72.
- Banerjee, M. (1994).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Appearance-reality, display rules, and regulation strategies.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_____ (1997). Hidden emotions: Preschooler's knowledge of appearance reality and emotion display rules. *Social Cognition*, 15, 107-132.
- Cole, P. M. (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309-1321.
- Ekman, P., & Friesen, W. (1975). *Unmasking the fa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Fuchs, D. & Thelen, M. H. (1988). Children's expected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communicating their affective state and reported likelihood of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9, 1314-1322.
- Gnepp, J., & Hess, D. L. R.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lay rules for expressive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03-108.
- Harris, P. L. Donnelly, K., Guz, G. R., & Pitt-Watson, R.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Child development*, 57, 895-909.
- _____ (1989). _____ & Gross, D.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real and apparent emotion. In J. W. Astington, P. L. Harris, & D. R. Olson, (Eds.), *Developing theories of mind*. New You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nes, D. C., & Abbey, B. B., & Cumberland, A. (1998). The development of Display Rule Knowledge: Linkage with Family Expressiveness and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9, 1209-1222.
- Josephs, I. E. (1994). Display rule behavior and understanding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8, 301-326.
- Joshi, M. S., & Maclean, M. (1994). Indian and English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Child development*, 65, 1372-1384.
- Malatesta, C. Z., & Haviland, J. M. (1982). Learning display rule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3, 1001-1003.
- Masters, J. C., & Carlson, C. R. (1984). Children's and adult's understanding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states. In C. Izzard, J. Kagan, & R.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Dowell, D. J., & Parke, R. D. (2000). Differential Knowledge of Display Rules for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Influences from Parents, Influences on Peers, *Social Development*, 9, 415-432.
- Saarni, C. (1979).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lay rules for expressive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5, 424-429.
- _____ (1984). An observational study of children's attempt to monitor their ex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1504-1513.
- _____ (1989a). Children's understanding of strategic control of emotional expression in social transaction. In P. L. Harris & C. Saarni(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pp.181-20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9b).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nonverbal emotional-expressive behavior. In B. Depaulo (Ed.),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Vol. 3-4, 275-295.
- Underwood, M. K., Coie, J. D., & Herbsman, C. R. (1992). Display rules for anger and aggression in school-age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66-380.
- Wellman, H. M, Cross, D., & Watson, J. (2001). Meta-Analysis of theory of mind development: The truth about false belief, *Child development*, 72, 655-684.
-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s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 _____ & Shipman, K. (1996). Children's expression of negative affect: Reasons and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42-849.

1 차원고접수 : 2006. 10. 01.
수정원고접수 : 2006. 11. 23.
최종게재결정 : 2006. 12. 05.

Preschoolers' Decision on Emotion Display and Motives for Emotion Display

Hyun Joo Shim

Soon Hyung Yi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1) investigate preschoolers' decision on emotion display according to their ages, types of situations, types of audience figures, types of affect experienced; 2) investigate preschoolers' motives for emotion display according to their ages and types of situations. Subjects were 39 three-year-olds and 46 five-year-olds recruited from two day-care centers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s. Each child was individually interviewed with pictorial tasks. The major findings of the experiment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eschoolers' decision on emotion display according to their ages, types of situations, and types of affect experienced. Five-year-olds could decide whether or not to display emotion more appropriately than three-year-olds. When a situation required emotion masking, children performed better in a negative story; in a situation requiring emotion expression, children performed better in a positive story.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eschoolers' motives for emotion display according to their ages and types of situations. Five-year-olds responded with more appropriate motives for emotion display, while three-year-olds could hardly respond with appropriate motives. 'Other-oriented motive' was used more frequently when a situation required masking of emotion while 'self-oriented motive' was used more in a situation for emotion expression.

Key words : decision on emotion display, motives for emotion display, display rule, type of situation, type of affect